남도 봄꽃 구경 서두르세요

구례 산수유·광양 매화 축제 등 잇따라

고온탓 전년보다 10일정도 앞당겨 열려

이상기온으로 인해 올해 봄꽃을 소재로 한 전남지역 축제들이 지난해보다 10일정도 앞당겨 개최된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구례 '산수유꽃 축제'를 시작으로 광양 '매화문화 축제' 여수 '영취산진달래 축제', 목포 '유달산 꽃 축제' 등이 남도의 정취를 전국에 전하게 된다.

■전남 봄 축제

축제명	기간	문의
구례 산수유꽃 축제	3월 15일~18일	061) 780-2227
광양 매화문화 축제	3월 17일~25일	061) 797-2363
구례 섬진강변 벚꽃축제	3월 30일~31일	061) 780-2227
여수 영취산 진달래 축제	3월 30일~4월 1일	061) 690-7575
목포 유달산 꽃 축제	〃	061) 270-8441
영암 왕인문화 축제	3월 31일~4월3일	061) 470-2241

▲구례 산수유꽃 축제

구례군은 지리산 온천관광지에서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제 9회 산수유꽃 축제'를 개최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산수유 재배지인 산동면에서 열리는 풍년기원제를 시작으로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산수유 생주스 맛보기, 산수유 차 무료시음과 산수유 떡치기 등 산수유와 관련한 다양한 체험행사가 열린다.

▲섬진강변 벚꽃축제

구례 문척면 섬진강 변에서는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 '구례 섬진강변 벚꽃축제'가 벚꽃가요제, 자전거하이킹, 인라인 경주대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열린다.

▲광양 매화문화 축제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광양시 다압면 매화마을과 섬진강변 일원에서 펼쳐진다.

주요 행사로는 매화 꽃길 음악회, 광양버꾸놀이공연, 매화압화만들기 등 체험행사와 전국매화사진촬영대회, 매화백일장 등이 열린다.

▲여수 영취산 진달래 축제

국내 최대의 진달래 군락지인 영취산에서 오는 30일 산신제를 시작으로 4월1일까지 3일간 '영취산 진달래축제'가 개최된다. 부대행사로 진달래와 시의 만남, 진달래 꽃길 걷기대회도 마련된다.

▲목포 유달산 꽃 축제

개나리꽃과 벚꽃이 장관을 이루는 목포의 유달산과 북항동 회타운 일원에서 오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3일간 '유달산 꽃 축제'가 열린다.

화려한 불꽃놀이와 노적봉 강강술래, 4·8만세운동재현과 유달산 암벽체험 등 다양한 생활체험, 목포시립관현악단의 앙상블 특별공연, 청소년 댄스페스티벌, 빅밴드 7080공연 등이 있게 된다.

▲영암 왕인(王仁)문화 축제

오는 31일부터 4월3일까지 4일간 '왕인의 숨결, 상생의 바람'을 주제로 영암군 구림면 왕인박사 유적지 일원에서 열린다.

벚꽃과 함께하는 이번 축제는 '왕인맞이', '1000인 릴레이-천인천자문', 영암도자기 빚기 체험행사와 도포제 줄다리기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계획돼 있다.

/송기동기자 song@

봄 향기 물씬 풍기는 춘란 전시회 춘란 전시회가 지난 5일 강진군 성전면사무소에서 개최돼 동호인들과 일반 군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성전 난우회(회장 이효식)가 마련한 이번 전시회는 회원 14명이 정성들여 가꾼 '홍화' '복색화' 난 등 130여 작품이 선을 보였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목포 '동본원사' 존치 여부 주목

문화재청 2004년 이어 또 등록문화재 지정 예고

문화재청이 옛 동본원사 목포별원(현 중앙교회)을 등록문화재로 지정 예고함에 따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동본원사를 철거하려던 목포시 방침에 변화가 올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화재청은 8일 동본원사 목포별원 등 근대건축물 7건을 등록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

문화재청이 1930년대 불교 사찰로 건축돼 현재 목포중앙교회 본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옛 동본원사 목포별원을 등록문화재로 지정 예고한 것은 이 건물의 보존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동본원사 건물은 앞으로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친 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문화재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목포시는 그러나 동본원사 소유주인 중앙교회 측이 철거에 찬성했고 등록문화재 지정에 반대의사를 밝힌 만큼 등록문화재 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등록문화재 제도는 설사 지정되더라도 철거가 가능하며 소유주가 반대하고 있는만큼 문화재청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문화재청 관계자는 "강제성이 없다고 해서 국가기관이 등록문화재로 지정했는데도 철거를 강행한다면 올바른 행정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니냐"면서 "지난 2004년에 이어 또 다시 지정 예고한 것은 그만큼 보존 가치가 높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진도 바닷길 축제' 내달 17일 열린다

진도 바닷길 축제가 다음달 17일 열린다.

진도군은 '제 30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를 내달 17일부터 19일까지 바닷길이 활짝 열리는 고군면 회동리 등지에서 개최된다고 8일 밝혔다.

'바닷길 열려요! 통일로! 세계로!'라는 주제로 열릴 이번 축제 기간에는 조수간만의 차에 의해 고군면 회동리와 의신면 모도리 사이 2.8km의 바다가 너비 40~60m으로 갈라지는 '현대판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 경이로움을 더 할 것으로 기대된다.

축제 기간에는 진도씻김굿, 남도들노래, 강강술래, 진도만가 등 진도 민속 민요공연과 함께 동춘서커스 등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특히 올해는 관광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선상 도다리 낚시, 진돗개 묘기자랑, 외국인 문화체험, 개매기 체험, 장군 포토존 운영, 서화 및 진도아리랑을 배울 수 있는 예향진도체험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됐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진도군(군수 박연수)은 지난 7일 군민을 대상으로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를 열고 황칠나무와 후박나무 등 4종 3천여 그루를 무료로 배부했다. 진도군은 올해 88ha의 면적에 4억6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후박, 황칠, 동백 등의 난대성 수목을 심을 예정이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흑산도로 숭어 잡으러 오세요"

신안군 내달 14일 '개매기 축제'

신안군이 다음달 14일 흑산도에서 '숭어잡이 개매기 축제'를 연다.

군은 한반도 서남단에 위치한 흑산도 진리해수욕장 일원에 매년 한식을 전후해 숭어 떼가 몰려들고 있어 이를 관광 자원화 하기 위해 축제를 개최키로 했다. 이번 축제에서는 숭어 훑치기 낚시와 맨손으로 잡기 등 체험 행사와 해변족구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린다.

군은 축제 기간 중 청정해역에서 잡은 수산물을 관광객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방침이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딸기·토마토 조합원 맞춤식 현장교육

농협장성지부·안성교육원

농협장성군지부(지부장 조일윤)와 농협안성교육원은 8~9일 딸기·토마토 재배조합원 240여 농가를 대상으로 맞춤식 현장교육 및 현장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고품질 딸기(촉성·반촉성) 및 토마토(완숙·방울) 생산을 위한 재배관리, 병충해 방제 등에 관해 이론과 실습을 곁들여 조합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다.

나병만 군지부 지도경제팀장은 "주산단지 활성화와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올해 25회 이상 지역특성을 살린 현장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성=고재빈기자 jbgo@

■ 새얼굴

"창의적 인재 육성 최선 다할 터"

김 봉 근 곡성교육장

"창의적인 인간을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부임한 김봉근(60) 곡성교육장은 "작은 일도 성실하게 실천해 신뢰받는 교육행정 구현에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무안 출신인 김교육장은 목포교육대학과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무안초등학교 교장, 전라남도자연학습장 관리소장 등을 지냈다. 가족으로는 부인 국태자씨와 2남. /곡성=김계중기자 kjkim@

영암 신활력 클러스터 사업단

작목반 '브랜드마케팅'교육

영암군 신활력사업 추진 클러스터 사업단은 9일 오후 2시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브랜드 마케팅 및 상품 트랜드 교육'을 관내 작목반, 농업 경영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브랜드의 중요성과 활용방안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다. .

최수일 원장(미래산업기술연구원)의 사회로 조송휘 농협중앙회 안산공판장의 주제 강의, 농산물의 브랜드 마케팅과 소비자 트랜드에 이어 질의, 토론 순서로 진행된다.

/영암=김한남기자 hnkim@